



산업보건 주요뉴스



“현장에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국조실, 관계부처에 발전소 안전관리 철저 이행 지시

정부는 12월 8일(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1년여 동안, 정부는 제도적 측면·현장 위험요인 측면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굳건히 자리 잡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관계부처는 발전소 안전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발전소 또한 발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무조정실이 앞장서서 챙겨나갈 계획이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또한 집중 추진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취지의 정부 대책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 현황〉

분야	추진 내용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월)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에 전기업 신규 추가
	▲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토록 위험성평가 지침 등 개정('20.1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노사전 협의체 합의결과('20.5월)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정규직 채용토록 후속조치 추진 중
	▲ 경상정비 분야는 적정노무비 지급 사범사업 추진 및 적정임금제 제도화 검토
	▲ 결정형 유리규산 취급 작업자에 1급 이상 호흡용 보호구 지급
	▲ 위험작업에 2인 1조 등 안전 관련 인력 총원(411명)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에 대해 트라우마 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대상 범위 등 명확화
	▲ 기술직 산업안전감독관 확충(50→60%대, '21.2월 총원 예정)
	▲ 안전사고 은폐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월)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현장에서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국조실, 관계부처에 발전소 안전관리 철저 이행 지시”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겨울철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 집중 점검 안전보건공단, 4일 추락, 화재 위험요인 점검

겨울철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은 12월 4일(금),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동절기 발생하기 쉬운 추락, 화재, 질식 등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상태 등과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점검했으며, 화재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가연물 격리·제거 여부와 화재예방 설비, 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겨울철 건설현장의 경우, 옥외작업과 신체활동 저하로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난방기구와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콘크리트 보온양생에 따른 질식사고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방지하는 방동제 사용 시 음용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동절기(12월~2월) 건설현장에서는 12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매년 평균 128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형태별로는 추락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동절기(12월~2월)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구 분	합계	2015.12 ~ 2016.2	2016.12 ~ 2017.2	2017.12 ~ 2018.2	2018.12 ~ 2019.2	2019.12 ~ 2020.2
동절기 건설업 사고사망자	643명	127명	138명	139명	119명	120명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겨울철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집중점검"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